

한라산의 이용자원 개발방향에 대한 도·내외 이용객의 인식 비교

최 병 길* · 김 상 우**

목 차

- I. 서 론
- II. 한라산 자원이용에 따른 일반적 현황
- III.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전
- IV. 연구의 대상 및 분석
- V. 결론

I. 서 론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높은 관광매력을 가져다 주는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려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많은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백두산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산이기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주는 산이기도 하다.

한라산은 방문객들에게 개방된 이후 사람에 의한 자연파괴 현상과 산 자체 기반암의 취약성 및 계곡과 절벽이 훼손에 민감한 특성을 지닌 까닭에 등산로 및 그 주변,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제주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강사

그리고 고산지대의 여러 곳에서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보호를 위해 일부 등반로를 폐쇄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훼손 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되고, 관광지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환경의 중요성과 관광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관광현상과 관광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관광지의 환경(자연, 사회, 문화)을 최대한 보전하고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관광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방법에도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대중관광 또는 대량관광의 대안관광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관광은 모든 관광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형태의 관광개발이던 모든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지의 발전이 바로 관광지를 쇠퇴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정책적 타협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의 이용과 보존,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관광지 주민의 요구는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광은 개발의 시점에서부터 관광지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선택의 문제이다.

관광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과 그 파급효과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참여자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관광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견해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한라산의 관광자원 개발 방향에 대해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즉 한라산을 대상으로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관점에 대해서 두 집단간에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있다.

II. 한라산 자원이용에 따른 일반적 현황¹⁾

1. 개발 현황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는 제주-서귀포간 및 중문을 연결하는 국도인 5.16도로와 1,100도로, 그리고 지방도로인 동부산업도로가 있으며, 진입도로는 영실, 어리목, 관음사 코스에 3개 노선이 있다. 한편 현재 공원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5개소 15,042㎡로서 465대의 주차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는 백록담을 향하여 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5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등산로 가운데 어리목 코스 및 영실 코스가 산 정상에의 접근성이 좋고 정상까지의 거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다.

<표 II-1> 등산로

등산로	경유지	거리(km)
어리목	어리목-사재비동산-윗세오름-서북벽-백록담	6.0
영실	영실휴게소-영실기암-윗세오름-남벽-백록담	6.5
성판악	성판악휴게소-사라오름-진달래밭-백록담	9.6
관음사	입구-구린굴-탐라계곡-용진각-백록담	8.3
돈내코	입구-평지케-남벽-백록담	10.1

어리목코스는 등반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등산로 주변의 피해가 많다. 등산로가 아닌 샅길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며 주변 식생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 영실 코스 또한 거리가 가깝고 등산 소요시간도 짧아서 많은 등반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어리목과 영실을 이용한 정상등반은 자연 휴식년제의 일환으로 1996년 3월부터 2002년 2월말까지 윗세오름에서 정상까지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성판악 코스는 입구에서 산으로 들어가면 곧 밀림지대로 이어지고 거리가 멀고 단조로우나 하산할 때는 오름들을 눈아래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관음사 코스는 한라산 등반 초기에 등반객들이 애용했으나 거리가 멀고 등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

1) 한라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는 국립공원 한라산 관리사무소에서 제공된 것임.

문에 등반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자연훼손 현상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는 1996년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었고 1999년 3월부터 해제되어 현재는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돈내코 코스는 등산거리가 10.1km에 달하고 등산 소요시간이 왕복 10시간 이상 소요되어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난사고 등의 위험이 산재해 있어서 1986년도부터 등산로의 통제를 시행해 오던 중, 1996년 3월부터 실시된 한라산 자연 휴식년제가 현재까지 연장 실시되어 이 등산로의 이용이 2002년 2월말까지 금지되고 있다.

공원의 시설현황으로는 공원구역내 시설의 유지와 탐방객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등산코스 입구에 4동의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특히 어리목과 영실에는 산악 구조대가 상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10동의 대피소가 각 등산코스에 있으며 곳곳에 화장실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관음사 지구에는 수용능력 1,000명 규모의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중변소, 급수시설 및 취사장, 종합 안내소 등의 시설이 있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물인 항공 무선 표지국, 통신 중계소 9개소와 정상근처의 기상관측 기기들이 있다.

<표 II-3> 한라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 현황

구 분	관리사무소	휴게소	대피소	화장실 (발효식)	안내판	소각로	야영장	관찰시설 (백엽상)
어리목	1		5	2	68			2
영 실	1	2		3	33			
관음사	1		2	3	58	1	1	
성판악	1	1	2	2	45			1
돈내코			1		26			
계	4	3	10	10	230	1	1	3

2. 한라산 이용객 현황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1990년에 36만 9천명, 1994년 50만명 등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6년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훼손방지 및 훼손지 복구를 위한 등산로별 휴식년제의 시행으로 일반인들에게 정상등반이 금지되면서 연간 42만 여명의

이용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1997년에는 54만명 1998년에는 55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관광객수가 51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2001년에는 한라산 방문객 수는 최소 57만 4천명에서 최대 68만명의 범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7).

관리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라산 방문객 가운데 도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0%정도이나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관광객 가운데 약 10% 정도가 한라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연중 4월과 5월 및 10월에 많은 이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 이후 매년 1월에 어리목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한라산 눈꽃축제가 연중행사로 자리잡아 도내·외의 방문객이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1월에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표 II-4> 월별, 년도별 방문객 현황

월 \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15,465	29,711	28,911	37,422	102,800	205,180
2	7,803	19,257	17,806	30,224	24,810	54,888
3	23,770	26,798	28,271	15,933	25,682	19,299
4	61,612	63,638	68,630	30,351	36,984	24,362
5	80,276	95,853	115,185	67,416	85,471	47,688
6	37,107	52,104	49,803	39,709	55,536	22,266
7	20,156	26,012	25,816	24,044	29,585	19,533
8	36,507	38,120	50,489	42,671	35,780	34,409
9	21,986	35,081	35,052	27,989	30,468	18,244
10	48,899	57,922	62,035	52,531	70,460	39,119
11	20,131	36,217	37,416	30,639	28,586	40,997
12	13,668	20,527	18,951	23,189	16,002	24,206
계	387,380	501,240	538,365	422,118	542,164	550,191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 휴식년제의 시행 이전인 1995년까지는 성판악 코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어리목 코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기준으로 어리목과 영실코스는 전체 이용객의 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코스이다.

<표 II-5> 등산로별 방문객 현황

등산로 연도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계
1993	177,532	121,610	84,677	3,361	387,380
1994	138,103	127,609	228,037	7,491	501,240
1995	136,395	145,791	235,843	20,336	538,365
1996	195,991	175,119	35,907	15,101	422,118
1997	287,863	192,675	40,533	20,793	542,164
1998	331,806	150,659	49,550	18,176	550,191

반면에 비교적 코스가 길어 정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관음사 코스는 가장 적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이용객 가운데 도내인이 20%이고 80%가 도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음사코스의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면에서 다른 등산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점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한라산 이용객의 특성은 관광의 성수기인 봄, 가을의 이용객수와 비수기인 여름, 겨울의 이용객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코스에서도 어리목·영실코스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등산로별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휴식년제에 따른 방문객의 변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문객의 주요활동은 단순 등반 위주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라산 이용 수입현황은 주로 입장료와 주차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2년 2억 2천만원 수준에서 1997년에는 5억원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이용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입장료 및 주차료 이외에 야영장 및 모노레일 이용에 따른 수입이 년 1천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표 II-6> 이용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금액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입 장 료	188,700	245,100	331,430	297,540	367,070	295,310
주 차 료	38,870	97,490	99,780	119,590	143,620	126,120
계	227,540	342,590	431,200	417,130	510,690	421,430

3. 환경훼손현황

자연훼손의 유형은 수목의 도벌 및 도채, 약용식물의 채취,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쓰레기 및 오물의 투기, 마소에 의한 식생훼손, 인공시설물 설치에 의한 식생파괴와 지형개변, 방문객에 의한 등산로 및 그 주변지역의 식생훼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여러 자연훼손 유형중 한라산의 자연가치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은 식생훼손으로 인한 침식과 산사태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동희, 1992).

한라산은 등반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과 집중호우나 동결융해 등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 식생이 파괴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상부와 만세동산, 윗세오름 등 주로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0년도 10월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훼손이 심했던 한라산 정상의 남벽부근은 그동안의 복구 작업으로 어느 정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벽(관음사 정상)과 동릉·서북벽은 식생이 파괴되고 토사가 유실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면적은 전체적으로 19만 5,300여㎡에 이르고 있으며 한라산 정상부의 훼손면적은 93년의 1만 6,000여㎡에서 7년 사이에 2배 이상인 3만 3,600여㎡로 늘어났으며 이 지역에서는 지피식생이 고사하거나 기반암 붕괴 및 분화구 매몰 등으로 토양경화와 습지식생이 파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민일보, 2000, 10).

훼손지에 대한 복구현황은 1993년 조사결과에 의한 한라산 훼손지는 대략 5만 9,100평으로 나타났는데 복구계획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모두 170억원을 투자해 복구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식생복구에 투자된 예산은 34억 6,700만원으로 연평균 5억 7,8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복구면적도 9,700여평으로 전체 훼손지의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제민일보, 1999). 2,000년도에 조사된 훼손면적의 복구비는 17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2000, 10) 복구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훼손면적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주요 훼손지가 등산로 주변과 정상에 가까울 수록 그 훼손도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 의한 자연의 훼손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5개의 등산로가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상부근에서 이용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기상상태, 지질조건 등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용객이 관리되어야 하고 한라산의 침식 및 황폐화 방지와 더불어 자연회복 대책수립 및 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라산 훼손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마의 방목금지, 등산객수 줄이기, 한라산 휴식년제의 시행, 등반객의 의식개혁, 새로운 등산로 개설, 케이블카의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Ⅲ.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전

현대사회의 특색인 산업 및 기술발전이 국민소득의 증대로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관광을 가져왔다. 대중관광의 특성인 대량수요, 대규모적 공급, 지나치게 강조된 규모의 경제적 이익 추구 등은 관광이 관광지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바로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모든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관광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은 관광이 관광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의 개발은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관광지의 활성화로 많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찾게 되면 관광지의 자연환경은 자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관광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²⁾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국립공원은 그가 지닌 자원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서 그 개발의 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관리주체 또는 방문객의 의지나 목표에 따라서도 또한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국립공원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자연 풍광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표적 곳으로는 한라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처리,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탐방객 안전관리

2) 국립공원의 관리 사례는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1995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의 내용에서 재구성된 내용임.

등 탐방객을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특히 등반객의 조난 및 산악 사고자 구조를 위해 각종 장비와 정예직원으로 관리구조대의 운영, 위험지구에 대한 특별관리 및 안내관, 철난간 등 각종 위험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설악산과 한라산은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은 해발 1,708m의 청봉을 중심으로 남에는 오대산, 북에는 금강산이 이어지고 총면적은 373km²에 이르는데, 동서를 가르는 분수령을 경계로 내설악·외설악으로 구분된다. 매년 400만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공원내에 2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온천지구와 설악동에는 관광집단시설이 마련되어 있다.(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오대산은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대산·두노봉·상왕봉·호령봉 등 다섯 봉우리가 늘어서 있고 노인봉 아래로는 소금강이 자리한다. 강원도 명주군·홍천군·평창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오대산은 19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98.5km²에 달한다. 용평종합휴양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숙박시설 및 야영장 3개소가 있다. 방문객수는 약 80만명에 이르고 있다(오대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외국의 경우 엘로스톤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1995, 가을호)은 1872년에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세계의 국립공원의 시원이 되는 곳이다. 규모가 남북으로 1백km와 동서로 90km나 되는데 규모만으로도 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 이념은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고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원(Pa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관리한다. 그리하여 공원 구역내 경관, 사적, 야생동물 자원을 보호하고 공원구역내의 자원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속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공원지정 당시의 자원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원칙을 수립하여 공원을 관리한다.

공원 내에서는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가능하고 공원내의 시설지구에는 관리사무소, 우체국, 병원 등 공공시설 중심이며 숙박은 집단 시설지구내에 위치해 있다. 자원의 한정적인 이용 및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성수기의 일시적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다.

엘로스톤 지역은 Natural Zone과 Park Development Zone으로 구분하여, Natural Zone은 공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이 원생자연의 상태이며 시설이 적고 탐방객의 이용 수준도 낮다.

공원 개발지구는 최대한도로 자연조건을 유지하되 공원관리와 방문객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며 이중 1%는 대단위로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공원의 모든 역사지구도 이

지역에 속하는데 문화자원이 자연자원보다 우선한다. 방문객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하여 공원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국립공원관리공단, 1995, 봄) 후지산이 포함된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은 193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1,227km²로 연간 탐방객은 1억 2천만 명에 이른다. 동경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호수, 화산활동이 낳은 아름다운 경관과 온천, 역사적 명소와 현대적 관광 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운송시설로는 등산철도와 케이블카, 로프웨이, 유람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20여년전 이러한 운송시설을 설치할 당시 자연훼손의 우려에 대한 여론이 많았으나 현재는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산림 등 자연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하고 있다.

공원에는 숙박시설, 야영장, 주차장, 휴양소, 방문객 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다. 후지산은 1합목(合目)에서 정상까지 고도에 따라 10등분되어 있다. 2,305m인 5합목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1만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과 숙박시설, 상가 등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이용형태는 자연의 탐승·학습 및 휴양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당국에서도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여하고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원내에서 체류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상지역의 자연자원 보존을 위해 자원의 제한적 개발과 제한적 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자원은 기후, 지질, 지형, 수문, 토양, 식생, 야생동물의 7가지 자연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김성기, 1997), 한라산의 지리적 조건은 이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서 국내의 다른 국립공원과는 크게 구분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라산은 화산분출과 지반 용기에 의해 이루어진 유년기 지형으로 360여개의 크고 작은 기생화산을 거느리고 용암류에 의한 현무암, 조면암 그리고 소량의 조면안산암 등으로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 및 학술자원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제주도, 1994).

한라산 이용객의 80%가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라산 자원이용을 관광객에게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용자원의 개발은 결국 관광자원의 개발을 의미하게 된다. Mitchell(1986)은 자연자원과 인위적인 시설만을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였으나, Chuck Y. Gee(1984)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그리고 Recreation 시설, 이벤트, 심리적 갈구까지도 개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관광자원은 이용의 주체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라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다. 현재의 이용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목적이 등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이용시설이 설치된다면 이용목적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이용시설물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공원 한라산은 국내외의 다른 국립공원과 환경적 요인 즉 지리적, 지형적 조건 및 이용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방향은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에서처럼 모든 국립공원의 기본적 관리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서로 상충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 역시 이상적인 개발 방식이 될 수는 있으나 개념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Nelson, Burtler and Wall, 1993; Craik, 1995; Stabler, 1997; Clake, 1997). 그러나 한라산의 경우에서처럼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원 개발의 접근방향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igram and Wahab, 1997; Wall, 1997; Miline, 1998).

IV. 연구의 대상 및 분석

1. 연구의 대상

한라산 국립공원은 방문객들로 인한 등산로 주변 및 정상부분 등의 훼손과 함께 산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훼손지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의식전환과 자연공원법이나 산림법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제주도의 다른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진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 후 이용객의 과도한 증가는 환경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자연보존만을 강조하여 자원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보존과 관광개발의 양자편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보존되면서 현재의 이용객의 욕구충족은 물론 다음 세대까지도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제한적 이용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라산 이용객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제주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용객수는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용객이 등반 목적으로 한라산을 방문하고 있으나 등반 이외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다양한 이용시설물이 설치된다면 한라산의 이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향은 한라산 이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자원개발이 모색된다면 어떠한 이용시설물이 설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인 도내인과 관광객으로 분류되는 도외인과는 인식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새로운 자원이 개발이 된다면 지역주민은 관광객보다 분명히 이용횟수와 이용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면서 한라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방매스컴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치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매스컴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케이블카, 산악자전거도로, 야영장, 스키장,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눈꽃축제나 칠죽제와 같은 각종행사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가설로서 한라산의 이용자원 확대 방안으로 '케이블카, 야영장 등의 이용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는 전제에서 연구가 전개되었다.

2. 자료의 수집 및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조사기간은 1999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라산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리목과 영실코스를 이용한 방문객들은 윗세오름에서 그리고 백록담을 방문한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성판악과 관음사코스에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00매를 배포하여 387매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항목이 많은 40매의 설문을 제외하고 347매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실증분석 자료의 특성<표 IV-2>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는 347명이며, 이 중 남성이 68.6%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였다.

관광객은 59.1%로 도내방문객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재학중이거나 졸업인 경우가 60.2%로 주류를 이루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6.4%로 다른 직업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IV-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누적백분률
성별	남성	238	68.6	68.6	68.6
	여성	109	31.4	31.4	100.0
연령	29세 이하	168	48.4	48.4	48.4
	30-39세	93	26.8	26.8	75.2
	40세 이상	86	24.8	24.8	100.0
현재 거주지역	제주도내	142	40.9	40.9	40.9
	제주도외	205	59.1	59.1	100.0
학력	고등학교(재)졸이하	105	30.3	31.0	31.0
	대학교(재)졸	209	60.2	61.7	92.6
	대학원(재)졸이상	25	7.2	7.4	100.0
직업	자영업자	27	7.8	7.8	7.8
	회사원	161	46.4	46.4	54.2
	공무원/전문직	41	11.8	11.8	66.0
	주부/학생	79	22.8	22.8	88.8
	기타	39	11.2	11.2	100.0
합 계		347	100.0	100.0	100.0

2. 자료의 분석

1)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라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객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산안내 시설(안내소 및 표지판), 자연보호 시설

(생태계보호 시설 및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기반시설(진입도로, 야영시설, 전망시설 등산로)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보다는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원내의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공중전화 등)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이용만족도 차이를 보면 편의시설이나 등산안내시설 그리고 자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50.5% 가 만족)이 느끼는 만족 정도가 지역주민(35%가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입도로나 주차시설, 야영시설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사이에 의견의 차이를 보여준 것은 이용교통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1> 공원시설의 이용만족도

구 분		불만족		중립		만족		Chi-square P-Value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편의시설	전 체	100	29.0	134	38.8	111	32.2	.001
	지역주민	41	28.7	57	39.9	45	31.5	.946
	관 광 객	59	29.2	77	38.1	66	32.7	
등산안내 시 설	전 체	69	20.0	137	39.7	139	40.3	.001
	지역주민	29	20.3	56	39.2	58	40.6	.952
	관 광 객	40	19.7	82	40.4	81	39.9	
자연보호 시 설	전 체	77	22.4	112	32.6	155	45.1	.001
	지역주민	38	26.6	48	33.6	57	39.9	.177
	관 광 객	39	19.4	64	31.8	98	48.8	
기반시설	전 체	63	18.4	129	37.6	151	44.0	.001
	지역주민	34	23.8	59	41.3	50	35.0	.009
	관 광 객	29	14.5	70	35.0	101	50.5	

<표 3-2> 자연보호 방안에 대한 이용객의 의견

구 분		부정적		중립		긍정적		Chi-square P-Value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안내요원의 확충	전 체	85	25.6	105	31.6	142	42.8	.001
	지역주민	40	30.1	47	35.3	46	34.6	.046
	관광객	45	22.6	58	29.1	96	48.2	
시간적/공간적 분산/제한	전 체	68	20.5	125	37.7	138	41.7	.001
	지역주민	31	23.3	50	37.6	52	39.1	.552
	관광객	37	18.7	75	37.9	86	43.4	
등반전 정보제공	전 체	45	13.8	92	28.1	190	58.1	.001
	지역주민	21	15.7	44	32.8	69	51.4	.129
	관광객	24	12.4	48	24.9	121	62.7	
휴식년제의 시행	전 체	46	14.1	84	25.7	197	60.2	.001
	지역주민	23	17.4	41	31.1	68	51.5	.029
	관광객	23	11.8	43	22.1	129	66.2	

한라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지에 언급된 대책 중 휴식년제를 실시했을 때의 효과(60.2%)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등반전에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거나(58.1%), 안내요원의 확충(42.8%)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용객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각각 구분했을 때 이용객을 분산하는 경우와 등반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보여주었으나 휴식년제의 시행이나 안내요원을 확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보다 긍정적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자원의 개발방향

자연보존이 우선이나? 이용객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연의 보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객의 욕구충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이용자원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는 스키장으로 전체응답자의 63.8%에 달했으며, 긍정적인 것으로는 자연학습시설로 찬성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반대입장을 보여주었고, 산악자전거도로와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산악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반대이나 관광객은 찬성의 입장을,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반대의 입장인데 비해 관광객은 중립적인 입장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표 3-3>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구 분		반대		중립		찬성		Chi-square P-Value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스키장	전체	216	63.5	47	13.8	77	22.6	.023
	지역주민	78	55.3	22	15.6	41	29.1	
	관광객	138	69.3	25	12.6	36	18.1	
산악자전거 도 로	전체	125	36.0	69	21.0	150	43.0	.047
	지역주민	62	44.0	26	18.4	53	37.6	
	관광객	63	31.0	43	21.2	97	47.8	
케이블카	전체	161	46.8	63	18.3	120	34.9	.006
	지역주민	80	56.7	24	17.0	37	26.2	
	관광객	81	39.9	39	19.2	83	40.9	
야영장	전체	89	26.1	93	27.3	159	46.6	.004
	지역주민	24	17.0	40	28.4	77	54.6	
	관광객	65	32.5	53	26.5	82	41.0	
자연학습 시 설	전체	28	8.2	56	16.3	259	75.5	.057
	지역주민	7	5.0	29	20.7	104	74.3	
	관광객	21	10.3	27	13.3	155	76.4	
각종행사(눈꽃축 제, 철죽제 등)	전체	36	10.4	69	20.0	240	69.6	.294
	지역주민	11	7.8	32	22.7	98	69.5	
	관광객	25	12.3	37	18.1	142	69.6	

설문지에 예시된 여러 가지 이용시설물이 한라산에 설치되었을 때 자연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각정도를 설문한 결과 관광시설물 중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설물로 스키장(75.2%), 케이블카(59.2%), 산악자전거 도로(45.3%), 야영장(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학습시설로 이용되거나 각종행사에 따른 자연파괴정도는 작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5> 자원개발이 자연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

구 분		크다		중립		작다		Chi-square P-Value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스키장	전 체	258	75.2	53	15.5	32	9.3	.000
	지역주민	101	71.6	25	17.7	15	10.6	.437
	관 광 객	157	77.7	28	13.9	17	8.4	
산악자전거 도 로	전 체	156	45.2	129	37.4	60	17.4	.000
	지역주민	78	54.9	47	33.1	17	12.0	.006
	관 광 객	78	38.4	82	40.4	43	21.2	
케이블카	전 체	202	59.2	76	22.3	63	18.5	.001
	지역주민	99	70.7	19	13.6	22	15.7	.001
	관 광 객	103	51.2	57	28.4	41	20.4	
야 영 장	전 체	140	40.8	134	39.1	69	20.1	.001
	지역주민	49	35.0	59	42.1	32	22.9	.181
	관 광 객	91	44.8	75	36.9	37	18.2	
자연학습 시 설	전 체	54	15.7	119	34.6	171	49.7	.001
	지역주민	17	12.1	57	40.4	67	47.5	.100
	관 광 객	37	18.2	62	30.5	104	51.2	
각종행사(눈꽃축 제, 칠죽제 등)	전 체	78	22.7	137	39.8	129	37.5	.001
	지역주민	33	23.4	62	44.0	46	32.6	.272
	관 광 객	45	22.2	75	36.9	83	40.9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인식패턴은 비슷하나 인식의 정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학습시설 및 각종행사로 인해 자연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영향정도를 작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키장은 부정적 영향 정도에서 두 그룹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산악자전거도로, 케이블카, 야영장에 대

해서는 두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관광객은 이 세 개의 설치물의 자연훼손에 대한 영향정도가 클 것으로 보는 정도가 케이블카(51.2%), 야영장(44.8%), 산악자전거도로(38.4%)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은 케이블카(70.7%), 산악자전거도로(54.9%), 야영장(35.0%)으로 나타나 케이블카와 산악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관광객에 비해 환경훼손의 영향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영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광객이 보는 정도가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영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제주 관광자원의 대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한라산은 이용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현상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환경 훼손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이용객을 통제하는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이용확대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한라산 이용객의 주된 방문 목적은 등반이며 환경훼손 또한 정상 부근이나 관광객의 밀집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등반객을 분산시키거나 등반 이외의 새로운 이용자원의 개발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욕구의 억제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원의 이용과 보존의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이용가능성, 이용횟수, 이용목적이나 수단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라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이나 자연보호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느 정도의 개발을 인정할 때, 자연학습시설, 각종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키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반대입장을 보여주었고, 산악자전거도로와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산악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반대이나 관광객은 찬성의 입장을, 케이블카

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반대의 입장인데 비해 관광객은 중립적인 입장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설치에 대한 지지도와 자연파괴에 대한 인식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키장, 자연학습시설 그리고 각종행사에 따른 설치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같은 방향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영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자연파괴의 영향정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면서 설치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었고, 관광객은 케이블카, 산악자전거도로, 야영장에 대해서 자연파괴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야영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만족과 자연보전 사이에 상충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원의 개발과 보존은 서로 타협이 요구되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이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한라산의 자원이용은 자원의 지속가능성 수준에서 관리되어지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석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한라산 이용자원 개발에 대해 일반적인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공간적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만 행하여졌고 시간적으로는 가을철에 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원개발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조사 수준에 있어서 엄밀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지각적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다.